일본 면방 각사의 신상품 창조 솜씨들(12)

닛신보의 링,컴팩트 방적 솜씨-면사의 경편 빔 서플라이 사업 계척

지금까지는 경편을 순면사로 짤 경우에는 쌍사라야 하며, 단사로는 짜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. 그런데 닛신보는 순면사로 그것도 단사 세번수 약연사로도 경편할 수 있는 정밀도가 높은 빔(beam)을 공급할 수 있게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였다.

경편에 사용되는 원사는 편기의 특성상 면 먼지가 없도록 하고 강도가 좋아야 하므로 면사를 중심으로 한 단섬유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별로 없었다. 방직을 일관하여 생산하는 도야마(富山) 공장을 거점으로 닛신보는 8년 전부터 빔 서플라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. 현재 월간 12t의 생산 규모로 최대 20t까지도 생산이 가능하다.

경편 정경기나 가호기는 직물용 설비를 개조하여 두 대씩 돌리고 있다. 또한 빔에 원사를 감을 때의 장력을 제어하기 위한 세 대의 컴퓨터 장치도 개량하였다. 앞으로 방적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린 기획 제안을 추진하여 사업을 확대할 생각이다.♣